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一. 시작하는 말

二. 고양시 개관

1. 상징하는 것들/ 2. 위치, 지리
3. 고양팔현과 고양정신(고양의 사람들)

三. 고양시의 역사

1. 구석기 시대/ 2. 신석기 시대/ 3. 청동기 시대
4.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7. 근·현대(개항이후~현재)

四. 고양의 문화

1. 민속놀이/2. 민간신앙

五. 끝맺는 말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시작하는 말

한 지역에 대한 역사 연구,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연구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발전 도모의 의지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최근에 지역 향토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양시의 경우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곳이 개발되고 건설 중에 있어 이러한 지역의 역사 연구·조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무분별한 지역 개발은 외형적으로 볼때 기존의 모든 환경, 지형을 변화시키고 산, 강, 마을 등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다. 또 외형적 변화에 따른 내형적 변화는 수백 수십년동안 내려오던 전통문화를 변질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 지역의 경제·문화의 변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기존 전통생활의 협동적 공동체생활에서 서구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 역사 등을 통해 주체의식을 확보하고 이러한 주체의식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애함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 고양지역의 역사를 통사의 형식을 빌어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오는 향토문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고양시 개관

1. 고양시의 상징물



시마크

▲ 시의 나무 : 백송(白松)

고양지역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백송 제60호

■ 시마크 특징

- 1) 세개의 삼각형은 고봉산, 덕양산과 더불어 북한산의 우뚝 솟은 모양이며, 고양 시민의 높은 기상을 의미한다.
- 2) 중앙 둥근 원은 고양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로 통일된 하나를 이룩하자는 의미이다.
- 3) 원을 감고 도는 소용돌이는 울렁이는 한강을 의미하며, 진취적이며 발전하는 시민상을 의미한다.



▲ 시의 꽃 : 장미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
특히 이 사랑의 꽃을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길러내고 있다.

■ 작도 방법

- 1) 정삼각형을 그리고 중심점을 설정한다.
(한 변의 길이 20cm 기준)
- 2) 중심점으로 삼각형을 3등분한다.
- 3) 중심점에서 삼각형 한번 길이의 1/4 크기의 원을 그린다.
- 4) 중심원을 이용, 바깥선을 반지름 4.5cm를 이용하여 그리고, 안쪽선은 반지름 4cm를 이용하여 작도한다.
- 5) 전체 삼각형과 접하는 원을 연결하고, 맞은편 선은 반지름 1.4cm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굽혀준다.



▲ 시의 새 : 까치

이른 아침 뒷동산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까치소리, 옛부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들 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2. 위치와 지리

고양시는 경기도 전체로 볼때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는 양주군, 북서쪽으로는 파주시, 남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인접하고 있다. 고양시의 남단은 옛 화전읍 현천리(현천동), 북단은 벽제읍 벽제리(벽제동), 서단은 송포면 구산리(구산동), 동단은 신도읍 효자리(효자동)로써 면적 266.49km에 달하고 있다.

고양시의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부, 서쪽 지역으로 그 지세가 동북부가 높고 서남부가 완경사로 되어 인근 한강까지 평야 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산세의 형성은 광주산맥의 한 여맥이 고양 근교에서 북한산 등이 준봉을 이루고 있다. 그중 북한산의 험준한 산세로부터 뻗어 나온 낮은 구릉성 산지가 고양 일대에 산재되어 있으며 한강이 고양 지역의 남서부를 관통하므로써 이 유역은 넓은 평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평야 지역은 주로 옛 일산읍, 송포면, 지도읍 등에 발달되어 있는데 그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퇴적평야인 일산지역은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특히 옛 지도읍 신평리(신평동)에서 송포면 법곶리(법곶동) 일대에 걸쳐 폭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토지가 매우 비옥하며 이 곳에서 산출되는 쌀은 매우 유명하다.

그리고 한강의 지류인 곡릉천 일대는 충적층으로 덮혀있고 해발 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의 위협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토양이 비옥하여 재방을 쌓아 최고의 농경지를 이룬다.

또 시의 동남쪽으로 창릉천이 흐르고 있

는데 하천 주변에 소규모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이 발원하는 산지는 남동쪽의 북한산, 북동쪽의 우암산과 서북쪽의 고봉산, 그리고 서남쪽의 덕양산 등이 주봉을 이루어 낮은 구릉성 산지의 형태로 한강 방면에 이어져 있다.

고양시의 행정 구역은 시 승격 이전까지 6읍(원당, 신도, 일산, 벽제, 지도, 화전), 1면(송포)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동 37개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시승격과 함께 고양시는 그 면적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광역 도시가 되었다.

이것을 일산구와 덕양구 2개구로 나누었는데 일산구청은 일산신도시 마두동 정발산 전철역 앞에 있고, 덕양구청은 화정동 화정 전철역 앞에 위치해 있다.

○○덕양구

(주교, 원신, 홍도, 성사1, 성사2, 효자, 신도, 창릉, 고양, 관산, 능곡, 화정1, 화정2, 행주, 행신1, 행신2, 행신3, 화전, 대덕동)

○○일산구

(식사, 일산1, 일산2, 일산3, 일산4, 탄현동, 풍산, 백석, 마두1, 마두2, 주엽1, 주엽2, 대화, 장항1, 장항2, 고봉, 송포, 송산동)

3. 고양팔현(高陽八賢)과 고양정신(高陽正心)

임진왜란의 많은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로 장식한 경우는 관군보다도 의병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석탄 이 신의 장군도 고양팔현의 한 사람인 민 순의 제자로서 스승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밖에도 많은 민병들이 여기저기서 창궐하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고양 땅에는 많은 제자를 선비들이 가르치며, 조선의 학문을 계도하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문봉서원과 고양팔현』에 실려있는 윤사순 교수의 글을 참고로 그 정신세계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추강 남효온 행촌 민 순
사재 김정국 모당 홍이상
복재 기 준 석탄 이신의
추만 정지운 만해 이유점(임진왜란 뒷세대)

이 중에 정지운, 홍이상 같은 분은 이 곳이 고향이었고, 이신의나 남효온은 20대 혹은 30대에 이 곳을 찾아든 학자들이며 민순, 이유점 등도 역시 이 곳 출신이거나 적어도 이곳에 이사와서 살았을 것이다. 민순 같은 이의 묘가 이 곳 현천동에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사제지간의 연원을 따지자면 이들이야말로 당시 사람의 주요 인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남효온은 정필재, 김종직의 문인이고, 김종직은 한훤당 김굉필의 문인이며, 기준은 조광조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또 정지운은 김안국과 김정국 현제의 문인으로서 퇴계의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민순은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다.

김안국이나 김정국 역시 조광조의 정신을 따라 행동하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당했던 인물로서 전형적인 선비정신의 소유자이자, 학자들이다. 그리고 홍이상, 이신의, 이유점은 각기 민순과 허협의 문인들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거의 모두 조선조를 대표할 만 한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양팔현의 8명은 조선조 선비의 대명사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현으로 일컬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선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행주대첩의 정신에 연결되느냐는 것이다.

위의 8명은 모두 문봉서원에 모셔진 분이다. 그들이 단순히 고양땅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서원에 모셔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의 인품과 업적이 당시 선비로서 인정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비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하게 규정짓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글이나 읽고 지내는 단지 양반이라는 신분상에서 오는 지식인이라는 의를 내포할 수도 있다.

선비란 예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비가 예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차리는 예는 오히려 두려워함이다’라는 말을 내포하는 말이 『논어』에도 나오듯이 ‘지나친 것을 삼가는 절도야말로’ 선비의 정신이라 한다. 그보다는 지나침이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즉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지니고 있는 바탕의 조화야말로 선비들에게 중요한 정신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이며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는 부편 부당의 정신이다. 즉, 공자의 말대로 한다면 “군자는 남과 잘 조화롭게 지내지만 패거리를 짓지는 않는다”(화이부동)의 정신이고 군자의 태도이다.

그러나 선비가 중용의 도를 지킨다고 해서 우유부단하고 지조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격의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소유자야말로 뚜렷한 지조와 주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강 남효온이 자신의 생각을 임금에게 상소하다가 죽음을 당한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음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삼군을 거느린 장수의 뜻은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한 공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어진다. 선비야말로 그 절개와 기개가 단순히 맹목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정신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행동이 사적인 경우가 아니라 공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움을 보면 그것이 의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견이사의)는 말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실천한다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바로 선비의 정신인 것이다.

곧, 봉공의 정신이 선비의 정신이 된다. 봉공에 투철한 까닭에 선비가 곧 나라의 으뜸되는 힘(국지원기)이라고 믿게 된다. 나라를 떠받드는 힘, 그것이 곧 선비라고 옛분들은 확신하였다.

이러한 선비정신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이분들께 교육을 받은 석탄이신의 같은 분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대적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고양정신의 하나인 행주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주대첩은 권을같은 관군의 지휘자와, 선비정신을 모태로 한 고양지역의 민간인이 하나가 되어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업적이다. 다시 말하면 관과 민의 조화가 기본적인 정신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주열이란 꼭 관과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고양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조화’에서 나온 결과였고 이것이 행주열 내지는 고양열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뛰어난 제자로 가르쳐 기르고,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배워 실천한다는 것도 기억하여 팔현의 얼을 우러러 배우고 실천에 힘쓸 때, 국가와 세계사의 주역이 우리 고양시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고양시의 역사

1. 구석기 시대

고양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일산신도시 발굴단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발견된 유적 자리는 옛 송포면 일산읍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부분 석기류인데 옛 일산읍 마두2리 지역에서는 구석기 유물 중에서 찌개가 발견되었고 마두3리에서는 끌개, 그리고 주엽1·2리 지역에서는 몸돌, 찌개 등이 모두 발견되었다.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야산의 잔구릉지역인데 형태가 완전한 석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이 적어도 5만년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 신석기시대

현재까지 발견된 고양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일산신도시 지역과 옛 벽제읍 지영리, 원당읍 신원리, 신도읍 지축리 오부자동 유적이 있다. 일산신도시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부분 주엽1리(현, 신촌초등학교 지역)와 옛 송포면 대화리 가와지 마을에서(현, 성저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은 신석기시대 토기와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 나무, 벼씨, 나무열매 등인데 특히 성저마을에서 발견된 벼씨는 연대 측정 결과 지금부터 4천4백60년전으로 판정되어 신석기시대의

농경에 대한 새로운 연대와 기원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새김무늬 종류로써 중부 서해안 일대에서 보고된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매우 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영리 유적은 곡릉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가 발견되었다. 가좌동 유적은 곡릉천 중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인 고고학자에 의해 즐문토기가 발견되었다. 지축리 오부자동 유적은 북한산에서 발원하는 창릉천 주변에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인데, 즐문토기, 청동기시대의 토기, 석기가 발견되었다.

3.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고인돌의 출토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한강의 하류유역이나 그 지류인 곡릉천, 창릉천, 원당천, 장진천 등 하천에 따라 펼쳐진 언덕진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청동기인의 식생활이 농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옛 송포면 가와지 유적과 성저마을에서 발견된 벼씨들은 신·청동시대 고양의 농경생활을 증명해 주는 역사유물이다.

고양시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은 문봉리, 화정리 지역의 지석묘군, 성사리 출토 동모용범편, 사리현리 출토 마제석부 등 약 20여곳이 보고되어 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4.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고양지역이 선사시대에 이어 역사무대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벽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의 건국·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벽제는 당시 하북위례성을 삼각산(백운봉, 인수봉, 만경봉) 아래 만들고 한강유역을 경략하였으나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성을 함락시킨 이후에는 고양지역도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고구려는 지금 고양지역내에 달을성현과 개벽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달을성현은 후에 고봉현으로, 개벽현은 우왕, 왕봉·행주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두 현은 고구려의 북한산군과 함께 백제, 신라를 경략하는 거점의 하나가 되었다. 그 뒤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세력을 한강유역에서 몰아낸 후 진흥왕 16년(555)에 북한산에 행차하여 순수비를 세웠으며 고양지역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군사적인 요지를 삼았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9주5소경으로 재편성 하였는데, 당시 고양지역은 646년에 설치된 한산주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달을성현을 고봉으로 개벽현을 우왕(일명 왕봉)으로 개칭하였다.

5. 고려시대

고려조는 통일한 후 태조23년(940)에 우왕현을 행주로 바꾸고 별호로 덕양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가 확립된 현종 9년(1018)에 고봉현과 행주현 두현을 양광도의 양주에 속현으로 예속시켰다. 공양왕 2년(1390)에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면서, 문종 때의 제도에 따라 본래 양광도에 속해 있던 고봉현을 경기좌도에 소속시켰다.

6.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태조3년(1394)에 비로소 고봉감무를 설치하고 부원현과 황조향을 고봉현에 예속시켰다. 이로써 고봉현은 종래 속현의 위치에서 벗어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의 지위로 승격되었다. 이 중에서 부원현은 지금의 용산, 과천지역이었으며 황조향은 옛 일산을 주읍리 일대가 되는 곳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오늘날의 고양지역과 대략 비슷한 지역으로 이루어졌고 태종 13년(1413)에 전국을 8도로 재편성한 후 덕양에 사는 백성의 요청에 따라 현의 명칭을 고봉과 덕양 두 현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고양현이라 바꾸고 종6품관인 현감을 두었다.

성종 원년(1470)에 덕종의 능인 경릉과 예종의 능인 창릉(두곳 다 서오릉에 있음)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관례에 따라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연산군10년(1504)에는 지연, 이오을, 미장수 등이 국왕을 모독했다는(금표지역 침범)죄로 처벌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죄인이 살던 곳이라 하여 고양군이 광주군과 함께 혁파되었다. 이때 관아가 있던 곳은 놀이터로 만들고 모든 백성은 내쫓고 민가까지 헐어 내수사의 노비들만 살게 되었다.

그 뒤 중종 원년(1506)에 군으로 복구되었다. 인조3년(1625)에 고양군수 심창이 관사를 벽제관이 있는 곳으로 옮겼으며 이후 고양군 지역은 큰 변화없이 조선말기에 까지 이른다.

7. 근·현대(개항이후~현재)

조선조 말엽에 오면 근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제도가 자주 변화하는데

따라 고양군의 소속도 여러차례 바뀌었다.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고양군은 한성부 관찰사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경기도 관찰사에 귀속되었으며 9월에는 양주군의 신혈면이 고양군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가 시작된 이후 경성부 행정구역의 잦은 변화에 따라 고양군의 관할구역도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 1911년 4월 경기도령 제3호로써 경성부의 부와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한 이후, 조선시대 이래 한성부에 소속되었던 한양도성밖 10리 지역, 즉 (성저십리)의 일부가 따로 고양군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경성부로 이속되었다.

이어 191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축소되면서 「성저십리」의 일부, 양주군의 일부, 경성부의 일부가 새로이 고양군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고양군은 관할 구역이 거의 2배로 확장되었으며 경성부를 에워싼 군이 되었다. 이때 모두 12개면 155개리로 구성되었으며, 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송인면, 독도면, 한지면, 벽제면, 신도면, 원당면, 지도면, 송포면, 중면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고양군청은 고양리에서 지금의 충정로 1가(현, 서대문 적십자병원)로 이전하였다.

그후 1936년 조선총독부령으로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용강면, 연희면, 한지면이 없어져 한성부로 편입되어 그 면적

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고양군청도 지금의 동대문 부근인 을지로 5가로 옮겨졌다.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서울시의 행정구역 팽창에 따라 은평면, 송인면, 독도면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다시 고양군 관할구역이 축소되었다. 이리하여 고양군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이루어진 군이 되었고 고양군은 당시 서울시의 서북쪽에만 인접하는 원당, 벽제, 신도, 지도, 송포, 중면의 6개면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61년 8월 군청의 위치를 서울에서 원당면으로 옮겼고 1967년에는 신도면에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법률 제2596호에 따라 신도면의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이 해에 신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이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벽제, 지도, 화전, 일산, 원당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능곡, 원당, 일산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도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9년 4월에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옛 일산을 일산리, 마두리, 장항리, 백석리, 주엽리 일대에 560여만평의 일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어 중산, 탄현, 성사, 화정, 능곡, 행신지구의 모두 6곳의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발표되었다. 1992년 10월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인구의 점진적 증가는 2003년 12월 현재 약 86만에 이르고 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Ⅳ. 고양의 문화

1.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를 말하는 데 각 민속놀이의 주된 특색은 민속적, 향토색을 가지며 전통적으로 행하여져 오는 데 있다. 여러 가지 민속놀이는 놀이의 주체에 따라 혹은 그 놀이가 주로 실시되는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진다. 즉, 나이나 성별에 의해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방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 고양지역에도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농경위주의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적인 민속놀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농경지와 한강이 인접되어 있는 송포지역에는 대화리, 가좌리 등을 중심으로 농악놀이 계통의 민속놀이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놀이로는 대화리의 호미걸이, 용구재 이무기제, 멧개안사줄다리기, 싱아

대(말장박는)소리, 성석동의 진발두레패 등이 있다.

2.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개인을 포함하여 한 가정을 위한 개인 및 가정신앙과 각 개인 및 가정이 소속해 있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 고양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앙의례로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각 자연촌락별로 마을공동체 신앙이 행하여지고 있다. 마을 뒷동산에서는 도당굿이 올려지고 가정개인신앙으로 터주, 조왕, 성주, 칠성, 상신 등을 개인적으로 모셨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가정신앙은 그 흔적을 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 중 주목할만한 것은 북한산의 산신굿과 관산동의 산신제와 정발산 도당굿을 들 수 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Ⅲ. 끝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고양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각 시대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았다. 결국 우리 고양지역에도 한국사에서 보이는 구석기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역사가 이어왔고 일반 민중들이 믿고 즐겨왔던 향토문화 역시 잘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의 맺음말에서는 이러한 고양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유물을 보존·연구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실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신도시 개발 이전에 실시된 지표조사,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수만점의 유물을 우리 고양지역으로 되돌려받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박물관과 같은 보존시설은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무형민속놀이 등을 전승·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대화리, 가좌리 지역이 일산신도시 지역에 일부 포함되고 정발산 도당곳의 경우 일산신도시에 완전히 편입되어 현재로선 전

승·보존이 힘든 상태이다.

세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는 우리 고양땅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책자나 사진, VTR 등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를 위한 보존이나 전승단체를 육성,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고양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행주산성 부근에는 행주의 얼을 계승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원을 만들어 향토역사·문화 등을 교육시키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고양지역에 대한 현장교육으로 향토에 대한 애郷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기타 지역의 향토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향토사 연구가와 현직 교사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조선시대 고양군의 면, 리, 촌의 조직

조선 영조 31년(1755년)

面	理	村
沙里大面	邑內里 大慈里 館山峴理 沙峴里 奈山里 竹院上牌里 竹院下牌里	梧里洞 龍伏院 沃彌池官村 古郡村 侍慕洞 麻根浦 瓮岩洞 舊書院村 內洞村 鷄基洞 卽榮洞 氷石村 銀杏村 於堰洞 新村 東山後村 伐乙村
元堂面	新一院里 二牌里 木牌里 道稀里 乃洞	寒井村 蛤陵皮村 莫地村 靑大洞村 島村 勿古里村 新村 樓陵谷 朴齋宮村 舟橋村 利祁谷 沙斤寺 星羅山村 松峴村 蘇洞村 宮村 해浦 東頭內村
九耳洞面	城洞里 食寺里	婦死門村 甘露村 馬位谷 泥田村 英水味村 五籠谷 見達山村 都監村
松山面	德耳里洞 加佐洞里 龜山里	炭峴村 寒山村 道里谷 翌安山 唐盲島 右音梁谷 中山 夜味村 獐山村 龜山村
中面	楮田一牌里 楮田二牌里 注葉里 楓洞里 山黃里 白石里 島中	後谷村 舟鴉谷村 瓦野村 馬頭里 獐項里 內谷村 禿宗村里 植谷村 石串村 方基里 萬頭里 泉草里 上島村 無劫村
已浦面	城底里 大二化山里	場里村 新村 江西洞 浦邊里 島村 東書村
求知道面	大壯里 土堂里 江古山里 加羅山里 東幸信里 西幸信里 內城洞里 外城	內谷村 葛山里 冷井村 花水村 三昌堂里村 氷石里 陵谷村 麻桑鍾里 加羅山村 柎匠里 藩水里 城谷里 梁田村 杏州小兒洞 結石村
下道面	清潭里 龍頭里 花香洞里 亂池島	沙器幕村 柎里村 三松里村 紙亭里村 新村 牛羅里村 地石山村 新草里村 德斤里村

참 고 자 료

-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 증보문헌비고
-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대동지지, 김정호편, 아세아문화사 영인
- 여지도서, 국편위
- 고양군지, 고양군지 편찬위원회, 1987
- 고양군지, 이석희 편, 1755
- 고양군읍지 (규 12706)
- 고양군읍지 (규 17359)
- 고양군여지승람 (규 10709)
- 한말근대령자료집, 국회도서관 편
- 행주얼지, 고양문화원, 1992, 1989
- 문봉서원과 고양팔현, 1992, 고양문화원
- 행주얼의 의미와 계승방안, 1993, 정후수
- 고양시 향토사 전문위원 정동일씨 향토사 연구논문

우리가 사는 고양 뜻깊은 역사와 환경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자!!